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운은 학녹을 데리고 광주로 향하여 가다가 윤승지 댁이 야간도주(夜間逃走)하였다는 말을 듣고 놀라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분명히 태후 유경만의 해를 입었구나!”

하였다.

계속해서 중원을 향하여 가다가 계량 월낙점이라 하는 주점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그 주점 사람이 모두 탄식하며 말하기를,

“세상 천하에 불쌍한 사람도 많도다!”

하거늘 성운이 이상히 여겨 묻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불쌍한가?”

하니, 그 주점 사람이 말하기를,

— “황도에 진상서라 하는 사람이 강남으로 귀양 갔는데, 진
[A] 상서는 귀양지에서 죽고 그 아들이 성묘 갔다가 붙들리어
— 황도로 올라갔다.”

라고 하였다.

성운이 그 말을 듣고 대경질색(大驚窒塞)하여 물었다.

“언제쯤 이곳으로 지나갔느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제 날 저물 때에 이곳으로 지나갔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성운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을 따라가야겠다 싶어 학녹을 데리고 급히 쫓아갔다. 일주일 쫓아 웅주 경수 물가에 이르렀다.

이때에 강남골 하인이 성운에게, 하인들이 진상서의 아들을 결박하여 가지고 방금 물을 건너갔다고 알려 주었다. 성운이 급히 쫓아가 붙들고 보니, 결박된 사람이 누이인 성희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정말로 성희인 줄은 알지 못하고 우선 마음이 편치 않아 급히 달려들어 결박한 것을 풀어 주었다.

그 하인이 호령하며,

“어떤 놈이기에 나라 죄인을 임의대로 풀어놓느냐?”

하면서 성운을 치려고 하자, 성운이 분개하여 칼을 빼 들고 그 하인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성운이 진소저 앞에 나아가니, 진소저와 연향은 정신이 아득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다가 정신을 겨우 차렸다. 진소저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니 어릴 적 성운의 얼굴이 자라서도 명백하였다. 소저가 놀라 성운의 손을 잡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성운이냐, 아니냐? 내가 네 누이라! 네 어이 나를 찾아오며 네 어이 나를 모르느냐?” 하였다.

성운 또한 그 말을 듣고 연달아 방성통곡하며 말하기를, “누님아, 누님아! 어떤 일인가? 꿈인가! 생시인가? 또 멀고 먼 강남 길에 어찌 살아 오셨는가?”

실과 같은 목숨이 하늘에 도달하여 둘이 무수히 통곡하는데, 연향이 또한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성운의 소매를 잡고 슬피 통곡하니, 산천과 초목이 함께 슬퍼하는 듯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연나라가 침입하자, 황제에게 군사를 받은 유경만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다. 진성운은 학녹과 전쟁에 참가하고, 순경과 호원도 함께 연나라에 맞서 싸운다.

그날 밤 백구십 리를 달려 상산 땅에 다다르니, 밤이 지나 새벽이 밝아 왔다. 성운과 순경이 백마산에 올라가 형세를 살펴보니, 연나라 군사가 평원광야에 빈 데 없이 가득하였다. 성운이 순경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서편으로 쳐들어가면 나는 동편으로 쳐들어가리라.” 하고는 말을 달려 적진 중에 들어가 적진 장졸을 헤치고 삼만여 겹 포위망 속으로 들어갔다.

이때 호원은 창을 들고 오는 창검을 막고 섰는데, 동편으로 뇌성벽력(雷聲霹靂) 같은 소리가 나더니 기치(旗幟)와 창검이 일시에 쓰러지고 제장과 군졸이 사면으로 분주하여 서로 밟혀 죽으며, 군마(軍馬)의 시끄러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문득 일원대장이 장창을 비껴들고 나타났다. 호원이 황망 중에 살펴보니 수기(手旗)에 글이 쓰였으며 ‘대장군 대원수 진성운’이라 하였다. 호원이 깜짝 놀라며 반겨 외쳤다. “호원을 살려 주소서.”

하니, 성운이 즉시 호원을 데리고 나가려 할 때, 문득 서편으로 풍진이 일어나더니 기치창검(旗幟槍劍)이 또 일시에 쓰러지며 일원대장이 들어왔다. 호원이 또 살펴보니 이는 순경이었다. 더욱 반가워하며, “어찌 그리 더디 오는가?” 하였다. 성운과 순경이 장수 삼만여 겹을 헤치고 나와 백마산 위에 호원을 두고 다시 내려왔다. 성운과 순경이 말을 재촉하여 적진 중에 다시 들어 동서로 마구 치니, 순식간에 사백만 군졸을 거의 모두 죽였다. 월성덕이 장대(將臺)에서 보다가 망천탄식(望天歎息)해 말하기를, “삼백만 군졸을 하루아침에 함몰(陷沒)시키고 무슨 면목으로 고국에 돌아가겠는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 칼을 들어 자결했다.

이에 공손걸과 유경만이 갈 바를 모르고 앉아 탄식하는데, 이때 성운과 순경이 장대에 올라 공손걸의 머리를 베어서는 깃대에 달고 군중을 호령하니, 남은 장수들이 흩어져 있는 군사를 거두어 와서 항복하였다. 성운이 다 죽이지 아니하고 예로 대접하니, 모든 적장과 군졸이 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았다.

성운이 또한 유경만을 잡아다가 앞에 꿇리고 죄를 낱낱이 말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긴 놈으로 간사하게 천자에게 참소(讒訴)하여 내 부친을 무슨 탓으로 강남에 귀양 보내어 죽게 하였는가? 원수를 만분지일이라도 갚아야겠다.” 라고 하였다.

- 작자 미상, 「진성운전」 -

1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역전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 ②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지닌 초월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19.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은 윤승지 닥의 불행이 유경만 때문이라고 확신하였다.
 - ② 주점 사람은 중원으로 향하던 진성운의 목적을 알아차렸다.
 - ③ 강남골 하인은 진성운을 보고 진상서의 아들임을 알아보았다.
 - ④ 호원은 순경이 적진에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 ⑤ 월성덕은 연나라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2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성운전」은 진성운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룬 작품이다. 진성운은 어린 시절 가족과의 이산, 기아 등의 고난을 겪지만, 능력을 길러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원수이자 나라를 배신한 적대자를 징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주인공 외에 여러 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데, 위협에 처하면 서로 도우며 국난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

- ① 진성운과 순경이 연나라 군사를 함몰시키는 것을 보니,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영웅들의 활약상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진성운과 성희가 서로를 확인하며 통곡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이 어릴 때 가족 이산의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진성운이 적들의 항복을 받고 유경만을 잡아 죄를 물은 것을 보니, 국난을 극복하면서 개인적인 원한도 갚게 되었다고 할 수 있군.
- ④ 유경만이 연나라의 패배를 탄식하는 것을 보니, 진성운의 적대자인 유경만은 진상서를 참소한 것을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적진에 둘러싸인 호원이 진성운에게 살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영웅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2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진성운이 위협에 처한 누이를 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② 연향이 숨겨둔 흔적을 진성운이 찾게 되는 이유가 된다.
 - ③ 학녹이 진성운에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동기가 된다.
 - ④ 떠돌던 진성운이 세상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된다.
 - ⑤ 누이가 강남에서 겪은 일을 진성운이 재확인한 단서가 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뜬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空)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찢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 정철, 「성산별곡(星山別曲)」—

* 소선 적벽: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한기: 책.

* 일락배락: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찢었던가: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찢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조장: 기개 있는 품행.

(나)

㉡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떴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망기: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에다가 정자를 짓고 **율정(栗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는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뿜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고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씨앗이 흙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며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생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생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율정설(栗亭說)」—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② [B]: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D]: ‘늪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E]: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2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25.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활동 과제: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 ①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②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③ ㉢: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④ ㉣: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⑤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늪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기’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물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율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이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를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뿔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경귀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27.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는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에서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8.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죽음은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이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연설 흥내만이 아니라 군가를 부르는 데도 그 특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 마을의 명물로 등장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어디를 가나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한 것에 가족들인 우리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마당에 들르는 것이었고 길을 가다가도 꼭꼭 불러 세우곤 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 값할 만큼 윤봉이의 재간이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급성장해 버린 건 아니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고, 중간중간을 잘 까먹어 수없이 더듬거렸다. 더구나 노래 도중에 헛뜨게 흘리는 멀건 웃음과 굵뚱 몸놀림은 그가 여전히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극성이 윤봉이의 꿈무늬에 줄줄 매달려 다닌다는 건 대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결국 그 점에 관해선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지도 몰랐다. 윤봉이가 근심될 때마다 아버지는 꿈을 이야기했다. 본디 우매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꿈에 거는 기대는 늘 최저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 의해 그 최저의 수준을 한치라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재주로 여기고 곡마단의 꿈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윤봉이는 **한 마리의 꿈**이었다. 꿈이 되어가는 윤봉

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감추어진 불순한 저의를 개탄하고 있었다.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 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진 남 모를 괴로움은 어머니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곤 했다. 마침 잘된 일이지 뭐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윤봉이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을 알 리 없는 윤봉이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를 먹으며 마냥 신명이 났다. 인민학교가 끝나면 나는 항상 윤봉이 손을 잡고 마을 정자마당으로 향했다. 나 어린 인민군 병사의 지휘에 맞추어 우리는 여름한철을 매미처럼 내내 노래만 부르며 보냈다. 그리고 그 소년병이 숙련된 조련사처럼 우리 윤봉이를 맹훈련시키는 걸 곁에서 성의껏 도우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다.

(중략)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그애한테 이해시키기란 참말이지 장대로 보름달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녀석은 저를 그토록 귀애해 주던 나 어린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제 노래에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꾸어 바보 윤봉이로 통하던 당시처럼 다시 거들떠도 안 보게 되었는지 그 까닭을 전연 몰랐다. 하기가 녀석 입장에서 본다면 구태여 그걸 알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노릇이었다. 녀석의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죽음기관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걸 틀기만 하면 되었다. 그걸 틀고만 있으면 빛나던 시절 화려한 기억이 저한테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줄로 알았다. 딱한 일이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고쳐지는 병이려니 생각하고 크게 신경들을 안 썼다. 다만, 인제는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그 버릇이 아무데서나 불쑥 튀어나올까봐 되도록 집 안에서만 놀도록 배려를 했다.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예상이 자꾸만 빗나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달래도 보고 혼뜨점도 내보았지만 다아 소용없는 것이었다. 녀석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동할 때마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인민군가를 기운차게 부르는 것이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소리였다. 뽀 한 대 얻어맞은 과거를 찌르면 등쪽까지 꿰뚫리는 죽창으로 양갈음하는 세상이었다. 비단인공 치하에서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된 곰배정씨네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당장에라도 쫓아올 성실은 사람이 마을 안에 여럿 있었다. 그들 앞에서 눈곱만치라도 공산당에 관계된 흔적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 누구나 혀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듯 하는 판국이였다.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어머니 연배의 마을 아낙네들도 한두 번 윤봉이의 연설 흥내와 군가를 들은 뒤로는 녀석과 마주치는 걸 꺼리는 눈치가 완연해졌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그네들은 어머니한테 넌지시 충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누가 듣겠다 싶으면 어머니는 윤봉이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수단을 다 해 봐도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기를 써가며 이미 물거품이 돼 버린 지난날의 명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난생처음 수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던 날의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 줄 적당한 선물이 우리에게

없었다. 끼니때가 되면 밥을 달라는 뜻으로 목청껏 군가를 부름으로써 어머니가 저를 주목해 주기 바랄 정도였다. 결국 어머니 입에서, 이 웬수녀르 것아, 라는 말이 빈번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네 안에 차츰 소문이 번져 전변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윤봉이는 재차 유명해졌다. **위태위태한 명물**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주 관대했다. 철부지 어린애 장난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사실 아버지 주장대로 아직은 윤봉이를 탈 잡아 자전거 체인이나 죽창을 꼬나쥔 채 우리집에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긴 했다. 그러나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과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과는 엄연히 뜻이 통하는 말이었다. 어느 때부터인가 불행이 아버지 신상에 슬금슬금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집 대문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우리는 마침내 윤봉이를 지목하기에 이르렀다.

— 윤홍길, 「양」 —

3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 ④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는 윤봉이에 대한 마을 아낙네들의 충고를 무시했다.
- ② 윤봉이는 인민군 병사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 ③ 가족들은 호랑이 사건 이후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해질 것임을 예상했다.
- ④ 인민군이 떠난 후 곰배정씨네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 ⑤ 윤봉이는 가족들이 자신을 집에서 놀게 한 이유가 자신의 노래 때문이라고 여겼다.

33.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정서,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 마리의 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 봅시다.

학생: ㉠

- ① 윤봉이를 훈련시키는 소년병에 대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 ② 윤봉이만 대견스럽게 여기는 어머니에 대한 ‘나’의 서운함이 드러납니다.
- ③ 윤봉이의 노래가 최저 수준에 머문 것에 대한 ‘나’의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 ④ 윤봉이에게 극성스럽게 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나’의 원망이 드러납니다.
- ⑤ 윤봉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차린 아버지의 슬픔이 드러납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희생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제물이 된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속력이 약한 계층에서 희생양을 찾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진다.

- ①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윤봉이가 ‘어찌지 못할 바보의 상태’였기 때문이겠군.
- ②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은 인민군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윤봉이를 이용한 것이겠군.
- ③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위태위태한 명물’로 여겨 피한 것은 윤봉이의 재주가 불러올 위기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겠군.
- ④ 가족들이 윤봉이에게 ‘찬란한 기억’을 대신할 것을 채워 주지 못한 것은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했겠군.
- ⑤ 가족들이 윤봉이를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지목한 것은 아버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윤봉이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겠군.